

황당무계, 씹쓸함, 어이없음, 그리고 짠~한 4컷 만화같은

우리시대인의 삽화



극단새벽 단막극 모음







지금, 이곳—

우리시대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단막극 릴레이

우리시대의
삽화





연극 '우리 시대의 삽화' 중 '그래도 지구는 돈다'.

시대의 답답함! 시원하게 굶는다

새벽 '우리 시대의 삽화' 18일부터

시대가 답답하다. 세종시, 4대강 살리기, 미디어법, 용산참사...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거대 과제들. 극단 새벽이 그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굶어 주겠다.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부산 중구 광복동2가 소극장 실천 무대에 올리는 연극 '우리 시대의 삽화'를 통해서다. '우리 시대의 삽화'는 5개의 단막극을 연이어 보여주는 작품 모음이다.

권력과 체제 앞에서 진리가 무참히 묵살되는 상황을 희화적으로 그려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살을 고민하는 한 시민의 심정을 그린 '다리 위에

서', 영화 '전태일'을 만든 감독 박광수로 오인돼 체포된 포르노 감독 등 황당한 상황을 그린 블랙코미디 '아닌 밤중에',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의 불안한 일상을 그린 비극 '비오는 날의 선술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 목사이들의 고뇌와 애환을 다룬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등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들인데, 극단 새벽은 작품 속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 우리와 무관한, 특별한 이야기인지 묻는다. 공연 수~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 공연. 12월 5일 공연 없음. 연출 변현주. 출연 변현주, 이현식, 김재형, 이도현. 051-245-5919.

임광명 기자 kmyim@









